



타인형 우주안에 '태종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753호

(음력 4월 15일)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회복하나 싶더만” 광주 구도심 상가 공실 ↑ ...신도심은 회복 ‘희비’

‘호남 최대 상권’ 충장로 중대형 공실률 26.42%...전남대 일대 38.05%

개선되는 듯 보였던 충장로와 전남대학교 등 광주 구도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빠르게 빈 점포가 늘어던 상무지구 상가 공실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구도심과 신도심 상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6.22%로 집계됐다.

광주 공실률은 2023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7.57%→17.01%→16.01%→15.43%로 매분기 감소하다 최근 2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는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상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역 경기 상황과 해당 상

권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호남 최대 상권’이라 불리던 충장로·금남로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1.0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24.36%를 기록,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다시 26.42%까지 치솟으며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충장로와 함께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로 꼽히던 전남대 상권 역시 2023년 4분기 48.7%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3분기 35.14%로 개선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4분기 37.71%로 공실률이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올 1분기에는 38.05%까지 증가했다.

먹자골목 상권이 조성된 금호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

분기 7.72%에 불과하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19.07%까지 급증, 올 1분기 18.5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 대표 신도심 상권인 상무지구는 공실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무지구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9.03%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15.76%를 기록, 올해는 12.70%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광산구 송정동지구는 최근 3분기 13.54%→9.78%→4.80%로 공실률이 급속도로 줄었고, 인근 우산동 상권도 9.12%→9.77%→4.69%로 점차 침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면기자



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 비로 인한 물웅덩이가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

‘비만 오면 질퍽’ 5·18묘지 2묘역, 유해 침수 의혹도 유공자 안장 국립묘지 ‘무색’...전면 재정부 시급

45주기를 맞는 5·18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잠든 국립 5·18민주묘지 제2묘역이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침수 피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집중호우로 유골함 일부가 물에 잠기고 묘지를 둘러싼 경사면에서는 산사태도 일어나는 등 민주현정질서를 위하다 산화한 유공자들의 안식처를 전면 재정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2묘역은 묘역 확충 사업을 통해 2017년 조성됐다. 총 1184기를 안장할 수 있는 2묘역에는 현재 유공자 유해 400여 기가 안장돼 있다.

그러나 2묘역은 조성 당시부터 습기가 많은 토양에 지어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잇따랐다.

비가 내린 지난 9일 2묘역 잔디밭 곳곳에서는 물웅덩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루 동안 누적 33mm 비가 내린 데 불과했지만 일부 묘역은 오전부터 신발 밑창이 잠길 정도로 고였다.

습기가 2022년에는 유골함 2기가 물에 잠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의 묘소에 뒤따라 숨진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장 과정을 참관한 한 유족은 “안장에 앞서 장례 업체들을 통해 2묘역 내 침수 피해가 빈

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묘지 관리소는 2묘역 조성 이후 배수시설 증설 등 정비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침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0년 집중호우 당시에는 묘역 곳곳에 빗물이 고이고 일부 지반이 가라앉았다. 묘역을 둘러싼 뒤편 경사면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묘 일부를 덮치기도 했다.

퇴직관 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11일 “2021년께 민주묘지 자체 예산을 들여 2묘역 배수로 등을 정비했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 물웅덩이도 고이고 있다. 묘지 부지의 한계로 배수가 잘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묘지 관리소도 2묘역의 배수 문제 등을 절감하고 조성 8년 만에 전면 재정부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묘지 관리소는 올해 1월 1·2묘역 통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1묘역 내 참배광장을 묘지로 활용해 2묘역을 이장하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1·2묘역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는 2묘역 내 침수 우려와 5·18 유공자 사이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현재 통합 용역안은 국가보훈부에 제출돼 정책 입안 단계를 거치고 있다. 임행백기자

HD현대삼호기술교육원

107기 조선업 전문기술 입문과정 교육생 모집

모집직종
취부, 전기

기술연수생,
어서와~

지원서 접수 2025. 5. 7.(수)~6.9.(월)
합격자 발표 2025.6.16.(월)
교육기간 2025.6.23.(월)~9.2.(화)

- #### 기술연수생 특전

 1. 교육비 전액 무료
 2. 수료 후 조선업 분야 우수기업 취업 지원
 3. 훈련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4. 기숙사 무료 제공 (조/중/석식 포함)
 5. 국제 선급자격 취득 지원
 6. 사내협력사 취업 후 1년 만근 시 300만원 지급
 7. HD현대삼호 직영 생산기술직 채용 시 우대

지원방법

 - 홈페이지 지원접수 (<https://tei.hshi.co.kr/>)

지원자격

 - 성별, 학력, 병역 제한 없음.
 - 신체 건강한 자
 -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 QR코드에 접속하여
홈페이지로 지원하세요

이재명, ‘텃밭’ 전남서 경청투어 마무리 “DJ처럼 작은 차이 넘어 힘 합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전남을 찾아 “김대중(전) 대통령(DJ)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서 국력을 한데 모은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전국 소도시를 찾아 민심을 청취했던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 지역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전남 화순을 시작으로 강진·해남·영암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후보는 해남에서 시민들과 만나 “광주 5·18 항쟁을 겪은 호남인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구하지 않았느냐”며 “여러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6월 3일에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탄압 속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 초사하셨다”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되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마라”, “서생의 문제의식을 잊지 않되 상인의 현실감각을 실현하는 게 정치다”라고 했는데 “맞나”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위기다.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며 “6월 3일 힘을 합쳐 국민이 존중받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화순군을 찾아 “오늘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을 싸워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로, 동학혁명의 날”이라며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고 말했다.

강진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며 “정책이나 국정을 할 때 편을 가르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진은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다.

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을 참 좋아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굴의 의지가 대단하다”며 “18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당파 싸움하느라 노론 소론, 남인 서인 갈라서 하루 종일 싸우고 죽이고 할 때 이분은 편을 가르치지 않고 소속한 집단을 넘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했다”며 “포기하지 않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전남 득표율 목표치로 90%를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 걸췌 5%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경청 투어에 동행해 “전남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85% 투표율에 90% 득표율을 목표로 하는 데 자신 있느냐”며 투표율 독려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화문에 이어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슬비기자